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의 관계

Romantic Attachment, Self-esteem and Love Attitudes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강 사 홍 성 례*

Major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Hee Univ.

Lecturer : Hong, Sung-Ry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romantic attachment, self-esteem, and love attitudes 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male:149, female:202) in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All respondents submitted their answers on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measurement instruments were Brennan, Clark, & Shaver'(1998) '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Rosenberg'(1979) Self-esteem Scale, and Hendrick, Hendrick, & Dicke'(1998) 'Love Attitudes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s.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 In romantic attachment and self-esteem, sex was not a significant factor. In the love attitudes, sex was significant, and men showed higher levels of Eros and Agape than women. Women showed higher levels of Pragma than men. (b) Romantic attachment (avoidance and anxiety dimensions) were negatively correlated to self-esteem. (c) The avoidance dimension of romantic attach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Eros, Mania, and Agape and positively Ludus. The anxiety dimension of romantic attach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Ludus, Pragma, Mania, and Agape. (d) Self-esteem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Mania and positively correlated to Eros and Pragma.

▲주요어(Key Words) : 낭만적 애착(romantic attachment), 자아존중감(self-esteem), 사랑유형(love attitudes)

I. 서 론

우리는 일생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의 유형과 질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랑은 친밀한 관계의 필수조건이며, 사람들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기도 하는데, 특히 청년기의 사랑은 이 시기의 발달과업으로서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개인의 정체감 및 친밀감 형성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배우자 선택과정과 결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경험이다.

최근에는 인간발달, 발달심리학, 아동발달, 임상 상담 및 치료 등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통해 사랑의 시작과 발전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에 들어와서 사랑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을 강조하거나, 열정적이고 감각적·성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혹은 이 두 가지를 합성시킨 것으로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인간능력을 성장시키는 데 공헌하는 가치 있고 유용한 것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시기심이나 불안과 고통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측면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유영주 등, 2003).

* 주 저 자 : 홍성례 (E-mail : finetree7@hanmail.net)

Borrello와 Thomas(1989)는 현대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이전 시대의 것과 다른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유영주 등, 2003 재인용). 첫째, 현대는 남녀의 동등성을 강조하고 둘째, 사랑을 결혼의 테두리 안에 두고 있고 셋째, 낭만적인 현혹, 애정, 흥분, 안정감, 성욕, 호르몬 같은 신체적 반응 및 물이성 등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사랑을 이해한다는 점이다.

사랑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는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보다는 상대방과 어떤 유형의 사랑을 나누는가이다. 사랑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관계의 특성이 관계 주체인 사람이 아니므로, 한 사람이 두세 명과 동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랑을 나눌 수도 있게 된다. 그동안 이루어진 사랑에 대한 연구들은 사랑이라는 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사랑의 전개과정 속에서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며 각 양상에 관여하는 변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관계의 초기에는 외모나 유사성 및 친근성 등이 매력으로 작용하여 관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것들이 친밀한 관계가 확립된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을 수 있다.

사랑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랑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애착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haver 등(1984)은 아동기 주양육자와의 애착 경험이 성인기의 낭만적 사랑에 반영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Bowlby, 1979; Ainsworth, 1969; Hazan & Shaver, 1987; Greenberger & McLaughlin, 1998; Rothbard & Shaver, 1994; McCormick & Kennedy, 1994; Paterson et al., 1995)에서,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은 양육자와의 반복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성인기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애착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자아 및 타인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인 내적 표상의 발달에 있어서 주양육자들의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성인기 애착모델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만을 반영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최혜경 등, 2004)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인생 초기에 주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애착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삶의 과정에서 접하는 다양한 인간관계 즉, 형제자매 및 다른 가족구성원들, 중요한 친구들, 연인, 배우자 등도 애착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대상(Hazan, 1992; Hazan & Zeifman, 1994)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 경험과 인간관계가 풍부해짐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되는 낭만적 애착은 이성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Dion과 Dion(1975)의 연구, 그리고 Hatfield의 주장(Sternberg & Barnes, 1988)

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자아존중감도 개인이 경험하는 사랑과 관계가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청년기의 사랑을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특성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어떤 연구자들은 청년기의 사랑을 몇몇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청년기의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랑유형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기의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사랑유형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기의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애착이론에 근거한 청년기의 낭만적 애착이 Lee(1988)가 제시한 사랑유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낭만적 애착과 개인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이 사랑유형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랑유형은 성별과 이성교제 경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함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연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이성교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애착의 특성

어린 시절에 경험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친밀한 관계의 원형을 습득한다. 발달적 관점에서 사랑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아는 생애 초기에 주된 양육자와 강한 애착을 형성하며, 이러한 유대관계는 소위 "내적 작동모델"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아동기와 성인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Bowlby, 1958, 1973; Ainsworth, 1969; Rothbard & Shaver, 1994). 내적 작동모델은 중요한 애착대상의 접근 가능성과 반응성에 따라 결정되는 자아에 대한 모델(나는 가치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인가?)과 타인에 대한 모델(나의 애착대상은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가?)로 구성되며,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 인지 및 정서적 반응을 결정한다(정태연 등, 2000).

애착(attachment)이란 한 개인과 주 양육자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정서적 유대관계로, 아동기 이후의 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Bowlby(1969)가 제안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의 개념에 기초한다.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

자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은 양육자와의 반복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내적 작동모델로 구조화되고, 이후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의 관계 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Hazan & Shaver, 1987; Greenberger & McLaughlin, 1998; McCormick & Kennedy, 1994; Paterson et al., 1995; 장휘숙, 2002)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애착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개인의 내적 애착표상 발달을 고려함에 있어 인생초기에 경험한 주양육자와의 관계특성을 지나치게 많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성인기 애착모델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만을 반영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형제자매 및 다른 가족구성원들, 중요한 친구들, 연인, 배우자 등도 애착유형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대상이 되기(Hazan, 1992; Hazan & Zeifman, 1994) 때문이다.

성인기의 애착표상은 보다 다양한 관계의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아동기의 표상보다 훨씬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아동들에 비해 성인들은 보다 크고, 정교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애착경험을 모두 가진 개인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애착경험을 가진 개인들에 비해 보다 분화된 네트워크를 발달시킬 수도 있다. 생애초기에 형성된 친밀한 관계의 원형은 변화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긴 하지만, 이후의 논의에서 Bowlby(1988)는 또한 '계속 변화하는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작동모델들이 다양한 경험의 과정을 통해 조정되고 재구성되는 능동적인 구조라는 점을 제시했다.

성인기 애착표상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촉진될 수 있다. Main(1991)에 의하면, 성인들은 자신의 사고과정과 그 사고과정을 유지하는 모델에 대해 다시 사고해봄으로써 작동모델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많은 연구자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은 성인의 애착을 측정하는 다양한 자기보고식 도구들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Brennan 등(1998)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문항으로 구성된 성인의 낭만적 애착척도(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낭만적 애착의 개념은 다양한 관계의 경험에 기초하여 그 경험이 현재 사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반영하고 있다.

낭만적 애착의 근간이 되는 두 차원, 즉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에 있어서 성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몰두하는 성향(불안 성향과 유사)이 높으며, 남

자가 여자보다 거부적 성향(회피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태연 등(2000)의 연구에서도 낭만적 애착에 있어서 회피애착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안애착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강진경과 정태연(2001)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안정적 및 몰두된 애착성향이 강하였고, 여성들이 두려운-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광은관 이위갑(2005)의 연구에서도 여자대학생은 남자대학생보다 회피요인의 점수는 높는데 비해, 불안점수는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와 Feeney와 Noller(1992)의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의 분포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애착특성에 있어서의 성차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대학생들이 낭만적 애착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를 의미하는데, Rosenberg(1981)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Rosenberg(1985)의 연구에 의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년들은 불안하고, 우울하며, 낮은 성취수준을 보였고, 사회적 고립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청년들은 자기표현에 대한 능력, 자기확신, 인내, 잠재적인 지도력, 재주, 지능과 숙련도,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사회적인 기술, 실용적인 지식 등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혜경 등(2004)의 지적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개인은 자기회의를 파트너에게 투사하여,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애정을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관계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파트너의 지속적인 애정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시하지 않고, 관계의 가치를 더 강조하며 파트너의 긍정적인 배려를 긍정적인 자아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적응행동과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에 있어 성차를 살펴본 연구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엄혜정과 정혜정(2006)의 연구와 남정홍(2001) 및 노선(2003)의 연구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춘례, 1992; 이혜숙, 1998)도 있으며, 남녀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김옥숙, 2001; 김태현·이영자, 2005; 홍성례, 2006)도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청년기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낭만적 애착 및 사랑유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사랑유형의 특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는 것은 단순한 만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두 사람은 각자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자신들을 둘러싼 사회 세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자신들만의 기억, 신념, 기대, 그리고 사회적 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사랑을 단일차원의 구성개념으로 정의하는 연구자들(Cook & Wilson, 1979; Sternberg & Grajcek, 1984)도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사랑을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 정의한다(Fromm, 1956; Lee, 1976; Hendrick & Hendrick, 1986; Sternberg & Barnes, 1988). 특히 Lee(1988)는 성경과 그리스·로마·중세 및 현대에 걸친 수많은 픽션과 논픽션 작품들로부터 4,000여 이상의 사랑에 관한 문구들을 수집하였고, 아울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에 관한 30문항의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사랑의 일차적 형태인 열정적 사랑(eros), 유희적 사랑(ludus), 우애적 사랑(storge)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기초유형의 각 두 종류씩을 결합시켜 사랑의 이차적 형태인 실용적 사랑(pragma = ludus + storge), 소유적 사랑(mania = eros + ludus) 및 이타적 사랑(agape = eros + storge)의 총 6가지 사랑유형을 추출하였다(유영주 등, 2003).

Lee(1988)의 이론은 다차원적인 사랑의 현상을 포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단지 하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이한 유형의 사랑들이 존재하며 각 사랑유형은 모두 타당한 사랑의 방식이다. Lee의 분류에서, 열정적 사랑은 사랑의 성적이고 감각적인 면을 포함하여 성적 매력과 갈망을 요구하고, 시각적인 신체적 매력에 끌리며, 언제나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상적인 연인을 만

나서 함께 사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유형이다. 유희적 사랑은 사랑을 남녀간의 게임으로 생각하고 심도 있는 헌신이나 관여 없이 단지 재미나 기쁨을 느끼고자 하며, 여러 명의 연인을 동시에 사귀기도 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적이기를 원치 않으며, 상대방에게 집착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우애적 사랑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우정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 기초한 사랑이며, 격렬한 열정보다는 지속적인 정에 근거한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우정과 감정이라는 보다 큰 목표의 한 측면으로 생각하는 사랑유형이다. 실용적 사랑은 실리적인 계산이 포함된 사랑유형으로, 미리 설정해 놓은 파트너의 조건들, 즉 성격, 교육, 종교, 동일한 관심사, 배경 등을 중요시하고 그에 적합한 상대를 만났을 때 강한 사랑을 느끼고 접근하는 형태이며, 자신이 상대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상대에게 헌신한다거나 미래계획 세우기를 꺼려한다. 소유적 사랑은 파트너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 질투심이나 독점욕을 특징으로 하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며, 상대에 집착하고 열광적인 사랑의 증세를 보이고, 강박증적인 성격을 갖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하는 사랑유형으로 간주된다. 반면 이타적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를 좋아하고 돌봐주며 용서하고 베푸는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파트너에 대한 헌신과 존경, 그리고 관심을 공유하며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이익과 성장, 그리고 행복을 더 배려하는 사랑유형이다.

사랑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Lee(1988) 또한 사랑의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으로, 사랑에 대한 생각은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고,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도 변화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랑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단 한 가지의 사랑유형에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과, 특정한 사랑의 유형도 개인사나 관계사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랑유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Hendrick 등(1984)의 연구와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유희적 사랑을 더 많이 하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실용적 사랑, 우애적 사랑 그리고 소유적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열정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Feeney와 Noller(1990)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우애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이타적 사랑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은혜(1996)의 연구와 홍대식(1996)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에게서 이타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이 더 높은 반면, 우애적 사랑이나 실용적 사랑은 여성들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강진경과 정태연(2001)의 연구에서는 열정적 사랑과 유희적 사랑, 그리고 이타적 사랑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실용적 사랑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휘숙(2002)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유희적 사랑과 실용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타적 사랑에서는 남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랑유형은 이성교제 경험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연구에서, 사랑경험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유희적 사랑을 하고, 현재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적 사랑이나 우애적 사랑 혹은 소유적 사랑을 하며, 유희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경과 정태연(2001)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중인 커플들이 열정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에서, 그리고 현재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싱글일 경우에는 유희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휘숙(2002)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열정적 사랑이나 소유적 사랑 혹은 이타적 사랑을, 그리고 이성교제중일 경우에는 실용적 사랑이나 유희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유형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차가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들이 대부분이나, Lee가 분류한 6가지 사랑유형 중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랑유형의 양상들은 연구들마다 다소 일관성 없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성교제 경험도 사랑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각 연구들마다 일치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과 이성교제 경험에 따라 사랑유형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애착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랑유형의 관계

어린 시절 낭만적인 사랑의 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과 실수가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수용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한다. 파트너의 지속적인 애정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은 관계만족도와 관계안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불안정한 기질은 이러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개인을 방해하기도

(최혜경 등, 2004) 한다.

Lee(1988)가 제안한 6가지 사랑유형 중 각 개인이 선택하는 사랑유형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관련 연구들은 그 수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Shaver 등(1984)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성인기에 우애적 사랑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아동은 열정적 사랑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랑을 포기하고 자란 아동은 상대적으로 성인기의 사랑에 무반응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Hazan과 Shaver(1987)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신뢰나 우정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에 기초한 사랑을 경험하는 반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파트너에게 강한 질투심과 강박관념적으로 몰입하는 사랑을 한다. Feeney와 Noller(1990)의 연구에서 회피적 애착의 사람은 열정적 사랑에서는 낮은 점수를 얻고 유희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불안/양가적 애착의 사람은 소유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우애적 사랑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Collins와 Read(1990)의 연구에서는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갖는 대학생들은 유희적 사랑, 우애적 사랑, 그리고 실용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적고 이타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양가적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소유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 및 이타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장휘숙(2002)의 연구에서는 애착이 열정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재홍(2006)의 연구에서는 회피애착은 애정관계행동중보살핌과 호감표현 및 신뢰에서 부적 상관을, 긴장·위축과 친밀감 불편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불안애착은 긴장·위축, 공격행동, 친밀함 불편, 그리고 집착과는 정적 상관을, 보살핌과 호감표현 및 신뢰에서는 부적 상관을 보여, 애착 차원과 애정관계 행동요소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개인의 사랑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 애착특성과 사랑유형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연구들마다 다소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불안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소유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비교적 일관적이다.

한편,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사랑유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심리학자인

Hatfield는 사랑에 대한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보다 훨씬 더 보상적이고 충족적인 낭만적 사랑을 하기 쉽다고 주장하였으며(Sternberg & Barnes, 1988), Dion과 Dion(1975)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서 방어성이 낮은 사람은 낭만적인 사랑을 자주 경험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강렬하면서도 비이성적인 낭만적 사랑을 하며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연구와 Feeney와 Noller(1990)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열정적 사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소유적 사랑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애적 사랑과 실용적 사랑 및 이타적 사랑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휘숙(200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남녀 모두에게서 열정적 사랑과는 정적 상관관계, 소유적 사랑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열정적 사랑을 하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은 소유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사랑유형과 관련 있음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애착특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연구자들(Armsden & Greenberg, 1987; Feeney & Noller, 1990)은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소유자들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장휘숙(2002)의 연구에서도 애착특성은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된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고, 회피적 애착수준과 불안/양가적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개인의 애착특성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에 있는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랑유형과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이성교제 경험과 사랑유형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별에 따라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랑유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부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4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혼의 남녀 대학생 35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은 여자 57.5%(202명), 남자 42.5%(149명)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여학생의 경우 평균 21.8세, 남학생 평균 20.2세이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8세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38.9%, 2학년 34.3%, 3학년 15.4%, 4학년 11.4%로, 1·2학년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종교의 경우 개신교(기독교) 29.9%, 천주교 14.5%, 불교 9.4%, 기타 0.6%이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45.6%를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애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성인의 낭만적 애착 척도(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 애착특성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을 측정하는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피애착은 총 18문항으로, 타인들과의 접촉과 친밀감을 원하지 않지만 타인에 대한 불신과 자신이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성향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불안애착은 총 18문항으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불안과 불확실성을 느끼며, 사귀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고 과도하게 의존적인 성향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회피애착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0.87$, 불안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5$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낭만적 애착의 하위차원인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척도에서 얻은 점수를 각각 연속변인으로 취급하였으며, 애착유형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79)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이용하였으며, 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0.84$ 이다.

사랑유형을 측정하는 척도는 Hendrick과 Hendrick 그리고 Dicke(1998)의 사랑태도척도(Love Attitudes Scale)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가지 사랑유형을 각각 4문항씩으로 분류하여 측정한다. 자기보고식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유형에서의 사랑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자들에게는 6가지 사랑유형에 대한 프로파일도 그려질 수 있다. 이 척도의 질문은 현재 사귀고 있는 파트너를 생각하면서 완성하라고 지시하며, 만약 현재 교제중인 파트너가 없다면 최근에 헤어진 파트너를 생각하면서 답하고, 이제까지 결코 사랑해본 경험이 없으면 앞으로 자신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택하도록 지시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으로 측정된 사랑유형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열정적 사랑(eros) 0.60, 유희적 사랑(ludus) 0.60, 우애적 사랑(storge) 0.72, 실용적 사랑(pragma) 0.70, 소유적 사랑(mania) 0.66 그리고 이타적 사랑(agape) 0.80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앞서 2006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30명의 청년기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2006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녀 대학생들에게 38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것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35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이성교제 경험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낭만적 애착,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랑유형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 그리고 이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t-검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 이성교제 경험, 낭만적 애착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사랑유형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이성교제 경험과 사랑유형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를 중심으로 이성교제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이성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84.5% (N=295)로 나타났고, 이성교제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은 15.5% (N=54)였다. 우선, 이성교제 경험 유무와 사랑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이성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소유적 사랑(M=3.15)과 열정적 사랑(M=3.05)에서 중간점수(3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우애적 사랑(M=3.1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에는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경험에 따라 사랑유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다(<표 1>에 제시).

이성교제 경험의 유무에 따라 사랑유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열정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 그리고 소유적 사랑이었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열정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의 점수가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애적 사랑의 점수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유희적 사랑과 실용적 사랑에서는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본 연구대상자들에게 ‘현재 이성교제중인 사람이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 54.4%(N=191)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45.6%(N=160)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이성교제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소유적 사랑(M=3.23)과 열정적 사랑(M=3.18)에서의 평균점수가 중간점수(3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섯 가지 사랑유형 모두에서 중간점수 이하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현재 이성교제중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사랑유형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본 결과(<표 2>에 제시), 열정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 그리고 이타적 사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적 사랑, 소유적 사랑, 그리고 이타적 사랑의 세 가지 사랑유형 모두에서 현재 이성교제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들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희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 그리고 실용적 사랑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성별에 따른 낭만적 애착,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랑유형의 차이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에 제시).

낭만적 애착에 있어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평균 점수가 척도의 중간점수(3점)보다 낮은 경향을 보여, 본 연구대상자인 대학생들의 낭만적 애착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낭만적 애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

<표 1>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N=351

구 분	열정적 사랑 M(SD)	유희적 사랑 M(SD)	우애적 사랑 M(SD)	실용적 사랑 M(SD)	소유적 사랑 M(SD)	이타적 사랑 M(SD)
있음(N=295)	3.05(0.72)	2.67(0.57)	2.74(0.83)	2.86(0.72)	3.15(0.82)	2.79(0.84)
없음(N=54)	2.78(0.69)	2.71(0.54)	3.17(0.80)	2.89(0.80)	2.94(0.64)	2.61(0.80)
t값	2.55**	-0.49	-3.50***	-0.26	2.19*	1.47

*p< .05, **p< .01, ***p< .001

<표 2> 현재 애인 유무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

N=351

구 분	열정적 사랑 M(SD)	유희적 사랑 M(SD)	우애적 사랑 M(SD)	실용적 사랑 M(SD)	소유적 사랑 M(SD)	이타적 사랑 M(SD)
있음(N=191)	3.18(0.74)	2.66(0.60)	2.74(0.82)	2.83(0.74)	3.23(0.84)	2.92(0.83)
없음(N=160)	2.80(0.65)	2.68(0.53)	2.89(0.86)	2.90(0.73)	2.98(0.72)	2.58(0.79)
t값	5.03***	-0.28	-1.66	-0.87	3.04**	3.91***

*p< .05, **p< .01, ***p< .001

이를 살펴본 결과,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모두에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중간 점수보다 높아(M=3.58),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사랑유형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열정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에서 중간점수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유희적 사랑, 우애적 사랑, 실용적 사랑, 그리고 이타적 사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사랑유형에 있어 성차를 살펴본 결과, 유희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 그리고 소유적 사랑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열정적 사랑, 실용적 사랑, 이타적 사랑에서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 점수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실용적 사랑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낭만적 애착,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랑유형간의 상관관계

이번에는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4>에 제시).

낭만적 애착의 하위차원인 회피애착과 불안애착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낭만적 애착의 회피 수준과 불안 수준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태연 등(2000)의 연구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낭만적 애착의 하위차원인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졌다.

낭만적 애착과 사랑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회피애착 수준은 열정적 사랑, 소유적 사랑, 그리고 이타적 사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열정적 사랑, 소유적 사랑, 그리고 이타적 사랑의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애착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희적 사랑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여,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유희적 사랑의 점수가 높아졌다. 낭만적 애착에서 불안애착 수준은 유희적 사랑, 실용적 사랑, 소유적 사랑, 그리고 이타적 사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용적 사랑과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불안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유희적 사랑, 실용적 사랑, 소유적 사랑, 그리고 이타적 사랑에서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사랑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아존중감은 열정적 사랑 및 실용적 사랑과 정적 상관을, 소유적 사랑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열정적 사랑과 실용적 사랑에서의 점수가 높아지는 반면, 소유적 사랑의 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여섯 가지 사랑유형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열정적 사랑은 실용적 사랑, 소유적 사랑, 그리고 이타적 사랑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

<표 3> 성별에 따른 낭만적 애착,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랑유형의 차이

N=351

변인	전체(N=351)		여자(N=202)		남자(N=149)		t값
	M(SD)	M(SD)	M(SD)	M(SD)			
낭만적 애착특성							
회피애착	2.42(0.55)	2.41(0.56)	2.43(0.54)				-0.37
불안애착	2.77(0.53)	2.80(0.51)	2.72(0.55)				1.50
자아존중감	3.58(0.58)	3.58(0.55)	3.58(0.61)				-0.15
사랑유형							
열정적 사랑	3.01(0.72)	2.95(0.69)	3.10(0.75)				-1.93*
유희적 사랑	2.67(0.57)	2.64(0.56)	2.71(0.59)				-1.21
우애적 사랑	2.81(0.84)	2.84(0.87)	2.76(0.81)				0.98
실용적 사랑	2.86(0.74)	2.97(0.73)	2.71(0.72)				3.32***
소유적 사랑	3.11(0.79)	3.05(0.76)	3.20(0.84)				-1.84
이타적 사랑	2.76(0.83)	2.41(0.71)	3.23(0.75)				-10.44***

*p< .05, **p< .01, ***p< .001

<표 4> 낭만적 애착,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랑유형간의 상관관계

N=351

변인	회피애착	불안애착	자아존중감	열정적사랑	유희적사랑	우애적사랑	실용적사랑	소유적사랑	이타적사랑
낭만적 애착									
회피애착	1.00								
불안애착	0.00	1.00							
자아존중감	-0.20***	-0.30***	1.00						
열정적 사랑	-0.33***	0.07	0.24***	1.00					
유희적 사랑	0.21***	0.16**	0.07	0.10	1.00				
우애적 사랑	0.02	-0.03	-0.06	0.00	0.09	1.00			
실용적 사랑	0.04	0.11*	0.19***	0.16**	0.15**	0.33***	1.00		
소유적 사랑	-0.18***	0.53***	-0.11*	0.24***	0.12*	-0.04	0.04	1.00	
이타적 사랑	-0.21***	0.21***	-0.08	0.41***	0.02	-0.01	-0.07	0.49***	1.00

*p< .05, **p< .01, ***p< .001

는 것으로 나타나, 열정적 사랑 점수가 높을수록 실용적 사랑, 소유적 사랑, 그리고 이타적 사랑의 점수도 높아졌다. 유희적 사랑은 실용적 사랑 및 소유적 사랑과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여, 유희적 사랑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실용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에서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애적 사랑은 실용적 사랑과 정적인 상관이 있어, 우애적 사랑의 점수가 높을수록 실용적 사랑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적 사랑은 이타적 사랑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유적 사랑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적 사랑의 점수가 높아졌다.

4. 사랑유형에 대한 성별, 이성교제 경험, 낭만적 애착,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다음에는 성별, 이성교제 경험, 낭만적 애착,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사랑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성별, 이성교제 경험, 낭만적 애착, 자아존중감이며, 이들 변인 중에서 성별(남자=1, 여자=0), 이성교제 경험 유무(있음=1, 없음=0), 그리고 현재 애인 유무(애인 있음=1, 없음=0)는 명목척도이므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또한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확대인자를 살펴본 결과, 모두 1.23이하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계수도 2에 가까워 잔차간에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음의 중다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 변인들은 상호 독립적임을 예견할 수 있으며, 독립 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사랑유형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에 제시).

사랑유형 중 열정적 사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 있는 변인은 성별, 현재 애인 유무, 회피애착과 불안애

<표 5> 사랑유형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351

<독립변인>	<종속변인> 열정적 사랑		유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실용적 사랑		소유적 사랑		이타적 사랑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남자=1)	0.17	0.12 *	0.09	0.08	-0.08	-0.05	-0.24	-0.16 **	0.23	0.14 ***	0.86	0.51 ***
이성교제경험(있음=1)	-0.08	-0.04	-0.01	0.00	-0.42	-0.18 **	-0.04	-0.02	0.07	0.03	-0.06	-0.03
애인(있음=1)	0.25	0.17 **	0.05	0.04	-0.05	-0.03	-0.06	-0.04	0.16	0.10 *	0.26	0.16 ***
회피애착	-0.33	-0.25 ***	0.25	0.24 ***	-0.07	-0.04	0.10	0.07	-0.22	-0.15 **	-0.30	-0.19 ***
불안애착	0.20	0.15 **	0.23	0.21 ***	-0.09	-0.06	0.24	0.18 ***	0.81	0.54 ***	0.35	0.22 ***
자아존중감	0.28	0.22 ***	0.18	0.18 ***	-0.07	-0.05	0.34	0.27 ***	0.01	0.01	-0.11	-0.07
상수	2.12		0.75		3.88		0.90		1.13		2.44	
F값	14.08 ***		6.25 ***		2.46 *		6.47 ***		29.63 ***		34.05 ***	
R ²	.20		0.10		0.04		0.10		0.34		0.37	
Durbin-Watson계수	2.15		1.91		1.95		2.15		2.01		1.99	

*p<.05, **p<.01, ***p<.001

착, 그리고 자아존중감 등의 5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열정적 사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회피애착($\beta=-0.2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beta=0.22$), 현재 애인 유무($\beta=0.17$), 불안애착($\beta=0.15$), 그리고 성별($\beta=0.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피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이성교제중인 대상이 있는 경우, 불안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자일 경우에, 사랑유형에 있어서 열정적 사랑에서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적 사랑에 대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의 20%였다.

유회적 사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3개 변인이었다. 유회적 사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회피애착($\beta=0.2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안애착($\beta=0.21$), 자아존중감($\beta=0.18$)이었다.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유회적 사랑 점수는 높아졌다. 유회적 사랑에 대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의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애적 사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은 이성교제 경험의 유무의 1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의 경험($\beta=-0.18$)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 우애적 사랑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우애적 사랑에 대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의 4%로 매우 낮았다.

실용적 사랑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 있는 변인은 성별, 불안애착,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3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실용적 사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0.27$)이며, 그 다음으로는 불안애착($\beta=0.18$), 성별($\beta=-0.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불안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자일 경우, 실용적 사랑에서

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적 사랑에 대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의 10%였다.

소유적 사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 있는 변인은 성별, 현재 애인 유무,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4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소유적 사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불안애착($\beta=0.5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회피애착($\beta=-0.15$), 성별($\beta=0.14$), 현재 애인 유무($\beta=0.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회피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남자일 경우, 그리고 현재 이성교제중인 대상이 있는 경우에 소유적 사랑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적 사랑에 대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의 34%였다.

사랑유형 중 이타적 사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성별, 현재 애인 유무,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4개 변인이었다. 이타적 사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성별($\beta=0.5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안애착($\beta=0.22$), 회피애착($\beta=-0.19$), 현재 애인 유무($\beta=0.16$)의 순이었다. 남자일 경우, 불안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회피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현재 이성교제중인 대상이 있는 경우에, 이타적 사랑에서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적 사랑에 대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의 37%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의 관계를 규명하는 동시에, 이성교제 경험에 따라 사랑유형에는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성별에 따라 낭만

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열정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이성교제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은 우애적 사랑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이성교제중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열정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 그리고 이타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성교제중에 있는 학생들이 이성교제경험이 전혀 없거나 현재 이성교제중이지 않은 학생들보다 이성과의 사랑관계에 열정을 갖고 좀더 진지하게 여기며, 이성관계에 몰입하고 헌신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반영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연구와 강진경·정태연(2001)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남녀 모두 누군가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는 열정적 사랑이나 소유적 사랑 혹은 이타적 사랑을 꿈꾸지만, 실제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 실용적 사랑이나 유희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장휘숙(2002)의 연구결과와는 매우 상이한 결과이다. 이처럼 이성교제 경험과 사랑유형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일치하는 연구결과들은 각 연구들에서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연구시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에서 지속적인 탐색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낭만적 애착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Hazan & Shaver, 1987; Feeney & Noller, 1990, 1992)의 결과와 일치하며, 회피애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정태연 등(2000)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애착특성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연구들(Bartholomew & Horowitz, 1991; 강진경·정태연, 2001; 김광은·이위갑, 2005)의 결과와는 불일치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김옥숙, 2001; 김태현·이영자, 2005; 홍성례, 200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수준에 있어 성차가 있음 제시하는 연구들(엄혜정·정혜정, 2006; 남정홍, 2001; 노선, 2003)의 결과와는 불일치하였다.

넷째, 사랑유형에 있어서 성차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열정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에서, 그리고 여학생은 실용적 사랑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유희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 및 소유적 사랑에서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희적 사랑에서

남성들이, 그리고 실용적 사랑, 우애적 사랑, 그리고 소유적 사랑에서 여성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들(Hendrick et al., 1984; Hendrick & Hendrick, 1986)의 결과와는 불일치한다. 반면, 남성들은 열정적 사랑 & 혹은 이타적 사랑에서 그리고 여성들은 우애적 사랑이나 실용적 사랑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Feeney와 Noller, 1990; 조은혜, 1996; 홍대식, 1996; 강진경·정태연, 2001; 장휘숙, 2002)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사랑유형에서 성차가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사랑유형에 있어서는 다소 일관성 없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들(Feeney & Noller, 1990; 조은혜, 1996; 홍대식, 1996; 강진경·정태연, 2001)에서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여학생들이 이성과의 사랑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덜 낭만적이며, 좀더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경향이 있는 실용적 사랑을 더 많이 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상대방의 신체적인 외모와 관련된 열정적인 사랑을 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려는 경향의 이타적 사랑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이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이타적 사랑을 더 많이 하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실용적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이타적인 사랑을 더 많이 하고, 남성들은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덜 의존하며 연인관계를 보는데 있어서 독자적인 경향(Frazier & Esterly, 1990; 강진경·정태연, 2001)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보다 사랑을 유희나 놀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본 연구결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여 현 젊은 세대의 성역할 가치관에 있어서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랑유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 Lee(1988)의 견해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 즉, 평균 연령이 20.8세인 청년기 혹은 성인 초기에 있는 미혼 대학생들의 세대 특성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된 애착을 지닌 사람들이 불안정한 애착의 소유자들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한 연구들(Armsden & Greenberg, 1987; Feeney & Noller, 1990; 장휘숙, 2002)의 결과를 지지하며,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낭만적 애착과 사랑유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회피애착은 열정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 및 이타적 사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유희적 사랑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회피애착의 사람이 열정적 사랑에서 낮은 점수를, 유희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Feeney와 Noller(1990)의 연구, 그리고 회피애착이 열정적 사랑 및 이타적 사랑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장휘숙(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불안애착이 유희적 사랑, 실용적 사랑, 소유적 사랑, 그리고 이타적 사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양가적 애착의 사람이 소유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의 결과를 지지하며, 불안애착이 애정관계 행동에서의 집착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장재홍(2006)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불안/양가적 애착이 열정적 사랑 및 이타적 사랑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제시하는 장휘숙(2002)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였다.

불안애착이 소유적 사랑은 물론이고 이타적 사랑과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지지되고 있지만,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대해서는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 애착이론을 근거로, 개인의 불안정한 애착성향이 파트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 혹은 의심이 자주 집착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소유적 사랑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으나, 불안애착이 파트너에 대한 헌신과 존경, 그리고 행복을 배려하는 특징을 지닌 이타적 사랑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Lee(1973)가 이타적 사랑의 일시성에 대해 언급했듯이, 이타적 사랑의 특성은 이성관계의 사랑에서 매우 드물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애착특성과 사랑유형의 변화과정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열정적 사랑 및 실용적 사랑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유적 사랑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선행연구들(Dion & Dion, 1975; Hendrick & Hendrick, 1986; Feeney & Noller, 1990; 장휘숙, 2002)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들은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사랑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시하지 않아 열정적 사랑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

감으로 실용적인 사랑을 하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파트너의 애정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소유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여덟째, 사랑유형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열정적 사랑은 실용적 사랑, 소유적 사랑, 그리고 이타적 사랑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유희적 사랑은 실용적 사랑 및 소유적 사랑과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우애적 사랑은 실용적 사랑과 정적인 상관을, 그리고 소유적 사랑은 이타적 사랑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열정적 사랑은 소유적 사랑 및 이타적 사랑과 정적 상관이 있고, 유희적 사랑은 실용적 사랑 및 소유적 사랑과는 정적 상관을, 그리고 이타적 사랑과는 매우 미약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 실용적 사랑은 우애적 사랑과 정적 상관을 그리고 이타적 사랑과는 부적 상관이 있고, 소유적 사랑은 이타적 사랑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제시하는 강진경과 정태연(2001)의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유적 사랑이 이타적 사랑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Lee(1988)가 분류한 사랑의 유형에서, 소유적 사랑(mania)과 이타적 사랑(agape)이 사랑의 이차색으로, 사랑의 일차색인 열정적 사랑(eros)의 요인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차색의 속에는 기본색의 특성이 녹아 있으나,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증후와 특성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집착의 경향을 보이는 소유적 사랑이 상대에 대한 헌신과 배려를 특징으로 하는 이타적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좀더 명확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 척도상의 제한점으로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의 낭만적 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여 개인의 애착양식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의 관계를 살펴본 한계가 있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성인기 낭만적 애착 척도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특성을 반영한 척도도 함께 사용하여, 개인의 다양한 애착양식들이 성인기의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에 어떠한 양상으로 반영되는지를 보다 심층적이고 역동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의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진행했던 연구결과로 지역적 편중성과 세대 특성이 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Hatfield와 Sprecher(1986)가 지적했듯이, 만일 파트너들이 치우침

없이 균형있게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써 서로간에 동등성(equity)을 인식하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더 전통적이거나 근대적인 것을 막론하고 사랑의 낭만과 열정이 결국 동반자적인 사랑이나 이타적인 우정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가 성별에 따른 차이와 함께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매우 안정적인 현상인지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능한 현상인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장기 종단연구나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포함하는 횡단적 연구 등의 후속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애착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인생초기에 경험한 주양육자와의 관계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관점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한 사회적·인간적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기의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청년기의 낭만적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사랑유형에 어떠한 양상으로 반영되는지를 밝혀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접수일 : 2006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12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1월 23일

【참 고 문 헌】

강진경·정태연(2001). 사랑에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개인적 및 관계적 특성에서의 차이: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1), 1-21.

김광은·이위갑(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53-239.

김옥숙(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춘례(1992). 자아존중감에 따른 통제소재와 학업성취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이영자(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73-193.

남정홍(2001).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선(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자아상태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엄해정·정혜정(2006).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2), 137-152.

유영주·서동인·홍숙자·전영자·이정연·오윤자·이인수(2003). *현대 결혼과 가족-건강 가족적 접근*. 신광출판사.

이혜숙(199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 관계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재홍(2006). 이성교제의 경험, 애정관계 행동 및 성인 애착차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37-155.

장휘숙(2002).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93-111.

정태연·최상진·강진경(2000).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85-102.

조은혜(1996). 성격과 사랑유형간의 관계: 사랑유형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혜경·신수진·강진경(2004). *사랑학*. 교문사.

홍대식(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준거. *한국심리학회지:사회*, 10(2), 81-110.

홍성례(2006).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청년기 남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37-51.

Ainsworth, M. D. S.(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Bartholomew, K. & Horowitz, L. M.(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Bowlby, J.(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_____ (1969/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 Y.: Basic Books.

_____ (1988). *A secure base*. N. Y.: Basic Books.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ok, M. & Wilson, G.(Eds)(1979). *Love and attractio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xford: Pergamon Press.
- Dion, K. K. & Dion, K. L.(1975). Self-esteem and romantic love. *Journal of Personality*, 43, 39-57.
- Feeney, J. A. & Noller, P.(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_____ (1992). Attachment styles and romantic love: Relationships dissolution.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4(2), 69-74.
- Frazier, P.A. & Esterly, E.(1990). Correlates of relationship beliefs: Gender, relationship experie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331-352.
- Fromm, E.(1956). *The art of loving*. New York: Harper & Row.
- Greenberger, E. & McLaughlin, C. S.(1998). Attachment, coping and explanatory style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2), 121-139.
- Hatfield, E. & Sprecher, S.(1986). Measuring passionate love in intimate relations. *Journal of Adolescence*, 9, 383-410.
- Hazan, C.(1992). Processes of attachment formation and transfer.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onal Relationships. Orono, Maine.
- Hazan, C. & Shaver, P. R.(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Zeifman, D.(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151-178). London: Jessica Kingsley.
- Hendrick, C. & Hendrick, S.(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392-402.
- Hendrick, C., Hendrick, S. & Dicke, A.(1998). The Love Attitudes Scale Short Form.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2), 147-159.
- Hendrick, C., Hendrick, S., Foote, F. H. & Slapion-Foote, M. J.(1984). Do men and women love differentl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177-195.
- Lee, J. A.(1976). *The colors of love*. N. Y.: Bantam.
- _____ (1988). Love Styles. In R. Sternberg & M.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ain, M.(1991). Metacognitive knowledge, metacognitive monitoring, and singular(coherent) vs. multiple in (coherent) model of attachment.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127-159). London: Tavistock / Routledge.
- McCormick, C. B. & Kennedy, J. H.(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 365-367.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 Y.: Basic Books.
- _____ (1981). The self-concept: Social product and social force. In M. Rosenberg and R. Turner(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N. Y.: Basic Books.
- _____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k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 Y.: Academic Press.
- Rothbard, J. C. & Shaver, P. R.(1994). *Continuity of attachment across the life span*.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31-71). N. Y.: Guilford.
- Shaver, P., Hazan, C. & Bradshaw, D.(1984). Infant-care-taker attachment and adult romantic love.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onal Relationships, Madison.
- Sternberg, R. J. & Barnes, M.(Eds.)(1988). *The psychology of lo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 Grajeck, S.(1984). The nature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312-329.